

현대·기아차, 파리에 고성능 모델 공개

'파리 국제모터쇼'가 오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 1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파리 모터쇼는 '세계 5대 모터쇼의 하나로, 올해로 120주년째다.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참여하고 프랑스 업체

인 시트로엥, 푸조를 비롯, 벤츠, BMW, 아우디, 포르쉐, 재규어, 랜드로버, 람보르기니, 애스턴 마틴, 마세라티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대거 참가한다.

하지만 유럽에서 사업을 철수한 제너럴 모터스(GM)나 포드, 크라이슬러가 모두 불참하고 폭스바겐도 참가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고성능 N 모델인 'i30 패스트백 N'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i30 N과 벨로스터 N에 이은 세 번째 N 모델 제품으로, 해치백인 i30 N보다 차체가 길고 낮아 더 역동적인 외관을 갖췄다.

기아차는 씨드의 슈팅 브레이크(왜건형) 버전인 신형 '프로씨드'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중전 모델은 3도어였으나 5도어로 바뀌었다.

프랑스 푸조는 '뉴 푸조 508 SW

4~14일 국제모터쇼

현대 'i30 패스트백 N'

기아 '프로씨드' 첫 선보여

역동적 외관 눈길 사로잡아

벤츠, 더 뉴 GLE 등 3종 공개

'와' '푸조 e-레전드 콘셉트', 새로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뉴 푸조 508 SW는 508 세단을 기반으로 한 에스테이트(왜건형) 모델로, 내년 1월 유럽을 시작으로 판매에 들어간다. 푸조 e-레전드 콘셉트는 전통적인 3 박스 쿠페 스타일로, 순수전기 자율주행 기술을 엮은 콘셉트카다. 100kWh의 배터리를 장착해 1

회 충전으로 600km를 달리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4초가 안 걸리고 최고속도는 시속 220km에 이른다는데 업계측 설명이다.

시트로엥은 '뉴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하이브리드 콘셉트'와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장 샤를르 드 카스텔바작과 협업한 아트카 이 메하리(E-MEHARI) 등 20여종을 전시한다.

뉴 시트로엥 C5 에어크로스 SUV 하이브리드 콘셉트는 오는 2020년 상용화 예정이다. 순수 전기 모드에서 최대 50km, 최고 시속 135km까지 달릴 수 있다. 배터리 완전 충전에는 2시간이 소요된다.

메르세데스-벤츠는 SUV 라인업 중 가장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GLE 신형 모델 '더 뉴 GLE'와 '더 뉴 B-클래스', 다이내믹 주행성능을 갖춘 '더 뉴

메르세데스-AMG A35 4매틱'을 처음 공개한다.

BMW는 올해 말 '3시리즈'의 7세대 신형을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이고 '뉴 X5', 로드스터 'Z4', 플래그십 쿠페인 '8시리즈 쿠페' 등도 전시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아차 '프로씨드'



벤츠 '더 뉴 GLE'

쏘울 신차 모델 성공신화 다시 쓴다



쏘울 신차(SK3) 성공다짐 결의대회

기아차 광주공장은 1일 공장 내 연구동 대강당에서 전체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쏘울 신차 성공다짐 결의대회'를 갖고 양산일정 준수와 완벽한 품질의 차량 공급 등에 총력을 쏟기로 다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만드는 준중형 박스카 쏘울은 대표적 '수출 효자 차종'으로 꼽힌다. 2008년 출시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만 지난달까지 166만대가 넘게 팔린 베스트셀링카로, 지난해에도 전체 생산량의 98.1%가 수출 물량일 정도로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다. 또 전 세계에 몇 되지 않는 '포프 모빌'(교황의 전용차)로 이름을 올린 차이기도 하다.

국내 자동차시장에 당시 존재하지 않던 신개념 CUV(Crossover Utility Vehicle)를 내세우며 혁신적 디자인으로 2009년 한국차로는 처음으로 레드닷 디자인상을 수상하는가 하면, 기아차 최초로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상',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을 휩쓸며 디자인경쟁을 내세운 기아의 결정체라는 평가도 받았다.

광주공장도 트럭 등 주요 상용차 위주에서 스포티지 생산을 거쳐 쏘울을 양산, 기아차의 세계 수출을 견인하는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쏘울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출시 이후 10년이 지난 최근에는 쏘울의 3가지 모델(가솔린과 디젤, 전기차) 중 전기차 모델 판매 비중이 70%에 육박하며 전기차 시장에서도 소비자들

하반기 출시 프로젝트 SK3

내수·수출 감소 위기 상황 타계

기아차 광주공장 성공다짐 대회



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4일 오전 공장 내 연구동 대강당에서 박래석 공장장을 비롯한 전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쏘울 신차(프로젝트명 SK3) 출시 성공다짐 결의대회'는 울

하반기 예정된 쏘울 완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신차 분위기를 띄우며 다시 한번 쏘울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렸다.

광주공장 임직원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양산 일정 준수, 완벽 품질의 차량 공급 등 모든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쏘울 신차가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실행할 경우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광주공장은 물량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라는 점에서 쏘울 신차에 거는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 분석이다.

기아차 광주공장 박래석 공장장도 이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 중소형 차급 판매 감소,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수입차 자동차 관세 25% 부과 움직임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신차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광주공장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성장시킬 비장의 무기로 쏘울 신차의 성공에 광주공장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美 25%관세 부과, 한국에 가장 큰 타격

한국무역협회 보고서...국가별 수출 감소율 22.7% 최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수출 감소율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내놓은 '미 자동차 고관세 부과와 주요국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수입 완성차와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 감소율은 한국산이 22.7%로 가장 높았다.

국가별 수출 감소율은 일본 21.5%, 중국 21.3%, 독일 21.0%다.

보고서는 완성차 업체들이 25% 관세를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할 것으로 가정하고 수입차 가격이 1% 상승하면 수입량의 1.77%가 국산차(미국산)로 대체된다고 추정했다.

2017년 국가별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는 일본

196만대, 한국 72만대, 독일 71만대, 중국 4만대로, 여기에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율을 대수로 환산하면 일본 42만대, 한국 16만대, 독일 15만대로 일본이 가장 많다.

보고서는 25% 관세를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소비자 가격 상승률이 23.9%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에서 만들어 미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영업이익률이 4.3%로 주요국 중 가장 낮아, 관세에 따른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다.

나머지 생산국 소비자 가격 상승률은 멕시코 23.7%, 캐나다 23.5%, 일본 23.3%, 중국 23.1%, 독일 22.9%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생산, 일자리 등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i30 최대 312만원·K5 220만원 할인

코리아세일페스타 28일 개막

국내 최대 관광·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신차를 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내 완성차업체는 지난달 28일 개막한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차종별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내놓고 고객 잡기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쏘나타, 그랜저, 투싼, 싼타페 등 승용차와 레저용(RV) 전 차종 8000대를 대상으로 3~15% 할인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차종별로 정상가 대비 ▲i30 6.4~15% ▲벨로스터 3~11.1% ▲쏘나타 7.7~9.6% ▲그랜저 3~4.6% ▲코나 3~6.4% ▲투싼 3~4.8% ▲싼타페 3~4.5% 등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i30의 경우 최대 312만원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쏘나타 247만원, 그랜저 145만 원, 코나 150만 원, 투싼 132만 원, 싼타페 149만 원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로 인한 추가 혜택을 받게 되면 차종별로 21만~87만원까지 더 합리적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기아차는 모닝, K5, K7 등 7개 주요 차종에 대해 선착순 5000대 한정으로 최대 7%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닝은 92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기아차 K시리즈의 경우 K5는 174만원, K7은 229만원까지 할인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포함시키면 K5는 최대 220만원, K7은 290만원까지 할인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광주·목포에서 장지까지 30분거리

수목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례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례문화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